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NEWS

4월

발행일 : 2025년 3월 31일 KOTRA VIETNAM BUSINESS NEWS



- ✓ 베트남 해외시장뉴스·월간 뉴스·프로젝트 동향 2
- ✓ 미국 신정부 출범 관련 해외시장뉴스 17
- ✓ <팀코리아협의회 동정>해진공, 국내 기업 위한 베트남 물류 거점 마련... 18
- ✓ <기업탐방>대한전선 19
- ✓ <법률>개정 부동산 사업법 주요사항 검토.....전현우 변호사 21
- ✓ <회계>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13탄.....엄진용 회계사 23
- ✓ <통관>수출식품에대한인증서발급을위한문서및절차에관한규정안내...이여람관세사 25
- ✓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광빈성> 28
- ✓ <이달의보고서> 2025 베트남 ESG 최신 동향 및 시사점..... 35
- 2025 KOTRA 서비스 가이드북.....
- ✓ <이달의 전시회> 2025 베트남 하노이 국제 무역 전시회..... 36
- ✓ 베트남 및 아세안지역 주요 경제 지표 37





인구 1억 베트남, 스마트·디지털 소비로 확대되는 유아용품 시장

- 출산율 감소에도 지속 성장하는 유아용품 시장, 소비자의 질과 양 확대
- 현지 유통망 다변화 추세, 온오프라인 마케팅에 대한 동시 접근 필요

도시화 진전으로 감소되는 베트남의 출산률

베트남 보건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4년 베트남의 합계출산율은 1.9명으로 2023년 2명에 이어 2년 연속 대체수준 출산율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도시지역의 합계출산율은 1.7명으로 비도시 지역의 2.1명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베트남 유아용품 시장

베트남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 및 1인당 가처분 소득증가에 따라 유아용품 시장은 지속 성장하고 있다. 또한 여러 국가와의 FTA체결 및 SNS 활성화에 대한 반사효과로 고품질의 수입 제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유아용품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베트남 Z세대 부모들은 현재 유아용품 시장을 이끄는 주요 고객층이다. 이들은 제품의 기본적인 기능과 가격 외에도 품질, 자연친화 소재사용여부, 안정성 등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삼고 있다. 온라인 채널을 통한 접근성, 빠른 배송, 개인 맞춤형 서비스 수준에 대해서도 SNS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비교하며 꼼꼼히 따진다.

최근 가장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군은?

현지 바이어들의 인터뷰 결과, 최근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품목은 기능성 유아 스킨케어 및 샤워 제품이라고 한다. 유아용 스킨케어 제품의 경우, 유아의 민감한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성분으로 제조된 제품에 대한 선호가 강하다. 귀리추출물, 우유, 국화 추출물 등이 포함된 자연친화적 제품이 대표적이며, 여기에 향을 선호하는 베트남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춰 향이 오래 지속되면서도 사용이 간편한 2-in-1 샴푸 또한 인기를 끌고 있다. 제형 또한 기존 유아 샤워 및 헤어케어 제품에서 주로 사용되던 젤 타입을 넘어, 부드러운 거품 타입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산되고 있다. 2세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외선 차단 제품에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인다. 최근 유아 피부 보호를 위한 선크림 사용은 중산층을 시작으로 대중화되는 추세다.

온라인 유통 플랫폼과 결합, 변화되는 유아용품 시장

유아용품 셀러나 제조업체들이 주요 온라인 플랫폼인 Shopee, Lazada, TikTok 등을 기반으로 직접적으로 베트남 시장을 진출하는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다. 최근 유아용품 시장에서 SNS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소위 Hot Moms으로 불리는 여러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Facebook, Tiktok을 기반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현지 소비자들은 이들의 라이브스트리밍을 즐겨 구독하며,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추천 리뷰를 참조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소비 심리를 잡다, 베트남 BNPL 시장

- 전자상거래 중심 BNPL 서비스 도입 지속 확대로 2025년 BNPL 시장 30%대 성장 전망
- 국내 기업의 베트남 BNPL 시장 진출 가시화

성장가능성이 높은 베트남 BNPL 시장

2019년 초부터 베트남에 BNPL이 도입되기 시작 됐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성장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BNPL 도입률은 서비스가 초기에 도입된 북유럽 및 대양주 지역이나 아세안 인근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나, 결제액 기준으로는 아세안 지역에서 말레이시아보다도 높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리서치앤마켓(Research and Markets)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BNPL 시장 규모는 2021~2024년 연평균 58.3% 성장해 2024년 19억1000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 전자상거래 시장 확장, △ 낮은 신용카드 보급률 등으로 인해 오는 2030년까지 85억10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주요 시장 플레이어, 전자지갑 업체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심

베트남 BNPL 서비스 제공 업체로는 MoMo, Zalopay 등 전자지갑 업체와 Fundiin 등 핀테크 스타트업이 있다. Shopee, TIKI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기존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자체적인 BNPL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BNPL 관련 구체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현행 법규상 비은행기관의 대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BNPL 사업자들은 파트너십을 통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TIKI는 HomeCredit와 협력해 'Home PayLater'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롯데파이낸스(LOTTE Finance)는 베트남 전자지갑 회사 잘로페이(Zalopay)와 협업해 '페이 레이터(Pay Late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체명	주요 가맹점	홈페이지
Zalopay	Zalopay 가맹점	https://zalopay.vn/dich-vu/tai-khoan-tra-sau
MoMo	MoMo 결제 가맹점	https://www.momo.vn/vi-tra-sau
Fundiin	eauty Box, Guardian, choTOT 등 다수 온라인몰 인몰 및 Pharmacy(약국)	https://fundiin.vn/
Home Credit	TIKI, TheGioiDiDong 등 다수 온라인몰	https://www.homepaylater.vn/
Viettel Money	Viettel Money, Paynow 결제 가맹점	https://viettelmoney.vn/paynow/
Lotte C&F	데시네마, 롯데마트	https://lottecnf.com/

시사점

베트남은 현금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6월 16일을 '현금없는 날'로 지정해 매년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현지 정부의 노력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비대면 결제 수요가 증가해 2017년 31%대였던 은행 계좌 보급률은 2024년 77.4%까지 상승했다. 이러한 금융서비스 접근성 확대와 더불어 모바일 환경에 친숙한 9X, 0X세대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전체적인 소비 패러다임이 변화하며, 새로운 소비습관을 뒷받침하기 위해 BNPL 시장도 함께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9X세대는 1990년대생, 0X세대는 2000년대생을 뜻하는 것으로, MZ세대를 의미하는 베트남의 세대 구분 용어다.



베트남, 2025년 도로교통법 강화가 물류 산업에 미칠 영향

- 베트남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물류 및 운송 업계 중심 부담 증가
- 교통안전 개선에도 불구하고, 물류비용 증가로 공급망 점검 필요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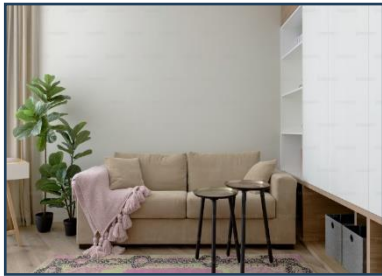
운전 시간은 주 48시간, 일 10시간으로 제한되며 연속 4시간 초과 운전이 금지되고 4시간 연속 운전 후 최소 15분 휴식이 의무화된다. 처벌 규정이 강화돼, 운전 시간 제한 위반 시 300만~500만 동, 과적 및 하중 기준 위반 시 최대 5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운수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특히 과적 및 하중 기준 위반을 지시하는 경우 개인은 400~600만 동, 법인은 800~12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물류 산업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인해 특히 물류 산업 전반에서 운영비용 증가와 배송 성과 저하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CEL의 보고서(Evaluating the Impact of Vietnam's 2025 New Traffic Laws on Supply Chain)에 따르면, 동법 시행 이후 응답기업의 약 80%가 중대하거나 심각한 차질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다. 세부적으로는 약 70%가 운영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답했으며, 80% 이상은 물류 및 운송 부문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상기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기업들은 운영비용 증가, 납기 지연, 배송 성과 저하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중 52.5%가 운영비용이 최대 10% 증가했으며, 67.5%는 납기 소요 시간이 10% 이상 늘어났다. 특히, 46.8%는 운영비용 증가와 납기 지연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어 물류 운영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배송 성과도 악화되면서, 베트남 물류 업계의 기존 정시 배송률(97~99%)이 90% 미만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응답기업의 37.5%는 새로운 규정에 대한 적응이 아직 미흡한 상태로, 기업들은 운영 최적화 및 비용 절감을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도로교통법 시행에 대한 기업 반응 및 대응

신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강화된 단속으로 인해 실제로 교통사고 발생률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25년 1월 한 달 동안 전국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년 동기 대비 26.3% 감소하면서 교통법 준수율이 높아졌다. 다만, 물류 업계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라오동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베트남자동차운송협회(VATA)는 주간 운전 시간을 현행 48시간에서 70시간으로 확대할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또한 현지 언론들은 운송업체들이 교통정체로 인한 운행 제한, 인력 부족, 과태료 부담 등으로 인해 규정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 물류 인프라 부족도 업계에서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베트남 소재 물류업체 A사는 KOTRA 하노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개정 시행령을 준수하기 위해 운송비 단가 조정이 불가피해지는 등 물류비 상승 압박이 크다"라고 전하며, 업계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조치라는 의견을 밝혔다.



베트남 가구 시장, 부동산·소비 트렌드 변화로 기회 확대

- 베트남 가구 시장은 도시화와 부동산 개발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
- 한국 기업들은 B2B 수출 확대, B2C 현지화 전략으로 대응 필요

베트남 가구 시장 동향

이탈리아 경제산업연구센터(CSIL)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베트남은 세계 6위의 가구 생산국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2014년 13위에서 급성장한 결과로, 지난 10년 동안 베트남의 가구 산업이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베트남은 주로 아웃도어 가구를 생산해왔지만, 최근에는 실내 인테리어 시장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의 총 가구 생산량 중 약 23%를 실내 장식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테리어 제품 생산량 중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중국 다음으로 유럽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가장 활발한 국가로, 미국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베트남 가구 수출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공급 확대로 인한 가구 수요 증가 전망

베트남의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주요 도시에서 부동산 공급이 확대되면서 베트남 내 인테리어와 가구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거·상업 공간 개선과 같은 요인이 가구 시장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업체 CBRE에 따르면, 2024년 하노이의 아파트 신규 공급은 3만960채로 전년 대비 세 배 이상 증가했다. 향후 2~3년간 베트남 부동산 경기 호조 및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가구 및 인테리어 시장도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의 아파트는 분양 시점에 따라 인테리어 완성도가 다르며, 대부분의 경우 입주자가 개인 비용을 부담해 인테리어를 직접 진행 해야한다. 고급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시공사가 협약을 맺은 인테리어 업체가 맞춤 인테리어를 제공하기도 한다.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이 주거 공간을 선호에 맞게 꾸미려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인테리어 시장 또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 동향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내 자체 생산 공장 및 ODM, OEM 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중국 대비 낮은 인건비, 현지 목재 공급의 용이성, 그리고 베트남 내수 시장의 성장 잠재력 때문으로 분석된다. 딜사이트에 따르면, 한샘, 현대리바트 등 주요 국내 가구 기업은 베트남 현지법인을 설립해 B2B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인근 ASEAN 국가로의 수출도 진행 중이다. 특히 베트남 부동산 경기 회복과 수출 시장 확대에 힘입어 현대리바트 베트남 법인의 2024년 상반기 매출액은 52억 원에 달하며 전년 동기 대비 37.8% 증가했다. 한편, 베트남에서 B2C 시장을 겨냥해 판매 중인 한국 가구 브랜드들은 주로 고품질을 앞세워 고가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베트남 남부지역 포트세일즈를 통해 2024년 4월부터 한국산 고급 가구 호치민으로 수출을 시작해 6개월동안 8TEU 수출 성과를 거뒀다. 고급 가구 시장의 성장과 한국 브랜드 수요 증가에 따라 향후 수출 물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IPA는 전망하고 있다.



차(茶)의 매력: 베트남 차 음료 트렌드

- 베트남 차 시장, 건강 트렌드와 RTD 음료 성장으로 지속 확대
- 한국 차 제품, 기능성·편의성 중심으로 베트남 소비자 공략 강화

차(茶) 시장 동향

최근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과 함께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베트남의 차 소비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녹차와 허브차 등 다양한 차 종류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카페인 없는 과일차나 허브차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의 차 시장은 2019년 2억9700만 달러 규모였으나, 2024년에는 3억6000만 달러로 성장했다. 2024년 기준 연평균 성장률은 7%로 예상되며 2029년 차 시장 규모는 4억 61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에서 차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중국으로, 연간 240만 메트릭 톤을 기록했다. 그다음으로 인도, 케냐, 스리랑카, 터키, 인도네시아가 뒤를 잇는다. 2024년 베트남의 차 생산량은 세계 7위로, 약 11만7000메트릭 톤에 달한다. 이는 베트남 차 산업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차 문화와 소비가 활발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베트남 농촌농업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에 따르면, 2024년 베트남은 세계 5위 차(茶) 수출국으로 올랐다. 지난해 상반기 차 수출량은 전년동기 대비 34.2% 증가했으며, 주로 홍차와 녹차를 중심으로 100여 개국에 15종의 가공차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주요 수출국은 파키스탄, 대만, 러시아, 중국, 미국, 유럽연합 등이 있다.

베트남 RTD(Ready to Drink) 차 시장 현황

베트남 RTD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24년 오프라인 기준 판매량이 전년 대비 10%로 증가한 6억9500만 리터를 기록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9년까지 RTD 차 시장은 연평균 약 4% 성장률을 보이며 8억5500만 리터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RTD 차 음료는 전체 RTD 음료 시장의 약 1/3을 차지하며, 특히 녹차와 우롱차를 기반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에는 밀크티를 비롯한 다양한 차 음료 제품이 출시되면서 소비자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

시사점

건강 지향적 소비 패턴 강화와 RTD 차음료 부문의 성장으로 한국 기업에 유망한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체중 감량, 피부 개선 등 건강 효능을 강조한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이에 맞춘 제품 포지셔닝이 중요하다. 한국에서도 인기 있는 디카페인 또는 유산균·식이섬유 함유 차 음료나 인공감미료를 활용한 제로 칼로리 제품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RTD 차음료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편의점 전용 제품 등 소매 유통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베트남 음료 유통업체 관계자 C 씨는 KOTRA 호치민 무역관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베트남의 더운 날씨로 평상시 커피, 차 음료를 선호하는 수요가 높으며 앞으로의 베트남의 차 시장 전망에 대해서 낙관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미 다양한 형태와 종류의 차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기에 현지 트렌드와 선호도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진행하고 시장에 진입할 것을 추천했다.



트럼프 2기, 美 통상정책 변화와 베트남의 대응 동향

-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베트남 대미 수출에 변화 예상
- 베트남 진출 기업,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맞춘 전략 필요

트럼프 2.0, 미국의 무역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사에서 1기 행정부의 기조였던 ‘America First’ 정책으로 회귀를 공식 선언하며, 미국 우선주의(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 관세 부과, 불법 이민자 추방, 중국과의 디커플링, 미국 제조업 부흥 등이 포함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관련한 대통령 각서를 발표하며, 관련 연방 부처 및 기관에 다음과 같은 통상 정책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2025년 4월까지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주요 내용은 △미국의 무역적자 및 글로벌 추가 관세 가능성 △불공정 무역 관행 △관세 권한 △환율 조작 및 불균형 △차별적 조세 정책 △무역구제법 △수출통제 △해외투자 제한 등이다.

베트남 현지 반응 및 동향

○ **베트남 정부의 대응 동향:** 베트남 정부는 무역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산 제품 구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다. 현지 매체 인사이드비나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지난 2월 외국인이 100% 소유한 위성 인터넷 기업이 현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규정을 승인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일론 머스크가 베트남 또 럼(To Lam) 공산당 서기장과 면담할 당시, 스페이스X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베트남은 그동안 통신 부문에서 외국 기업의 진출을 엄격히 제한해왔으나, 이번 조치는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베트남이 미국을 달래려는 움직임이라는 시장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상호 간 관세 부과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베트남 응우옌 홍 디엔(Nguyen Hong Dien) 산업무역부 장관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베트남 정부 발표에 따르면, 디엔 장관은 마크 나퍼(Marc Knapper) 주베트남 미국대사에 “베트남은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방 분야에서는 록히드마틴사의 군수송기 도입 협상이 진행 중이며, 비엠텐 항공의 보잉 항공기 추가 계약도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지 매체 티엔퐁(TienPhong)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을 경유해 우회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세금 탈루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공 함량이 낮은 제품의 수출을 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확산됨에 따라, 기업들이 신속하게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무역 방어 역량을 강화하며, 제품 품질을 개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베트남 내 진출 기업 반응:** 베트남 현지 매체 VnExpress에 따르면, 주베트남 미국 상공회의소(AmCham)는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100개 이상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美 무역정책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베트남에 진출한 미국 제조업 기업의 92%가 관세로 인한 공급망 교란과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에 참여한 기업의 85% 이상이 관세로 인해 양국 간 무역 규모가 감소하고 장기적인 협력 관계

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 주도로 미국을 방문한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 기업 관계자들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베트남이 상호관세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베트남 경제 전망

HSBC은행은 2월 11일 발표한 글로벌 리서치 보고서에서 베트남이 미국과의 대규모 무역흑자를 기록함에 따라 관세 리스크가 올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또한,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적 감시가 강화됨에 따라 베트남의 수출 제조업이 지속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현지 기업들도 사업 전략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베트남 은행 BIDV 연구소의 2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베트남산 상품에 10%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베트남의 대미 수출이 약 3~5% 감소하고, 수출 성장률도 약 1.5~2%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자제품, 섬유·의류, 목재,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농수산물만은 미국이 베트남에 다른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의 수입 관세를 부과할 경우,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긍정적인 전망도 제시됐다. 베트남 자산운용사 Vina Capital은 미국의 강경한 무역 정책이 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어, 미국과 베트남 간 무역 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 모두 대(對)중국 견제 전략을 유지해왔으며, 이러한 기조 속에서 미국과 베트남 간 협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미국은 공급망 재편과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베트남이 핵심 파트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미국 내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이 중국의 대체 생산 기지로 자리 잡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사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정책 변화는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에게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현재 베트남이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은 원산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급망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역 제재 가능성에 대비해 원부자재 출처를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함으로써 무역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과거 베트남 및 다른 국가들이 겪었던 관세 부과 사례를 참고해 사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무역 조사 시 적극 협력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은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 내 핵심 생산 기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규정을 준수하면서 제품 품질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향후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변화 속에서도 수출 활로를 찾고 무역 제재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2024년 베트남 다낭시 경제리뷰 및 2025년 전망

- 2024년 다낭시 경제 성장률은 7.51%로 63개 성시 중 12위 차지
- 서비스업이 경제성장 지속 견인, 2025년 연 10% 성장 목표

2024년 다낭시 경제 리뷰

2024년 다낭시 경제는 매 분기 성장을 이뤄내며 코로나 이후 부진했던 2023년 실적을 극복했다. 2024년 1분기 지역총생산(GRDP)은 전년 동기대비 2.45% 소폭 상승에 그쳤으나, 이후로는 2분기 7.96%, 3분기 9.00%, 4분기 10.18%의 인상적인 성장률을 기록하며 연평균 7.39% 성장을 달성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2016-2019 기간 다낭시의 연 성장률이 7-9%대를 기록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팬데믹 시기의 경제적 충격을 어느 정도 이겨낸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타 지방 성시와 비교 시에도 2024년 다낭시 경제성장은 주목할만 하다. 최근 2024년 베트남 전체 성시별 경제성장 결과가 발표됐는데, 63개에 이르는 성시 중에서 다낭의 1인당 지역총생산 증가율은 전체 14위를 기록했다. 특히, 5개 중앙 직할시(하노이, 호치민 시티, 다낭, 하이퐁, 켄터) 중에서는 2위를 기록했다.

2025년 다낭시 경제 발전계획과 시사점

다낭시 정부는 2024년 12월 초 '다낭시 당위원회 제22기 집행위원회 결의안 제22-NQ/TU'를 통해 2025년 경제성장 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성장 목표는 10% 이상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안정적인 산업생산과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고 유지하기 위한 다음 10가지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 (1) 세계 정세 및 재정·통화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업데이트하여 도시 내 기업의 무역·투자 환경을 지원한다.
- (2) 다낭 국제 직항편 개선을 확대하고, MICE·골프·웨딩 등 특화 관광 산업을 육성하며 동시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
- (3) 자본 부족, 원자재 가격 상승,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밀착 지원하며, 글로벌 수요 감소로 타격을 입은 산업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
- (4) 해외 수출을 진흥하고 기업 제품의 홍보와 소비를 촉진한다. 동시에, 관할지 내 소비 활성화, 물류 인프라 개발 및 투자유치를 강화한다.
- (5) 신용성장을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경제 수요에 맞춰 추진하며, 대출 절차 간소화 및 투명화, 위험 산업에 대한 신용관리를 지속 강화한다.
- (6) 관광기념품 산업육성을 지원하고, 스마트팩토리 컨설팅 제공, 국내 공급망 구축 및 가공·제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촉진한다.
- (7) 친환경·유기농업 모델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임업 정책을 추진하며, 불법 어업을 근절하고 해양·산림 생태계를 보호한다.
- (8) 행정 절차 개선, 기업과의 소통 강화, 지방 경쟁력 지수(PCI) 개선 등을 통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명하고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9) 노동 시장을 현대화하고, 기업 맞춤형 직업 훈련을 제공하며, 수출 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10) 문화·스포츠·보건·교육·사회보장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며, 감염병 대응, 교통 안전 및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베트남과 다낭시의 2025년은 제13차 전국당대회 결의, 제22차 시 당대회 결의, 시 인민위원회 결의, 5개년 사회경제발전 계획(2021-2025)에 제시된 중기 목표와 과제를 완수해야 하는 중요한 해이다. 이에 따라 올해 다낭시는 사회경제 발전과 관련된 목표와 과제를 완수하는 데 집중하고, 관련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산업분야는 IT, 물류 및 금융 서비스이다. 2025년 1월 16일, 다낭시는 소프트웨어 파크 2호의 확장 완료 및 개관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이번 확장은 다낭의 기술 인프라를 강화하고 향후 도시의 정보기술, 반도체, 인공지능 분야가 발전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다낭시는 자유무역지대와 지역 금융센터 설립을 준비 중에 있다. 국제 금융센터는 금융활동 및 은행, 증권, 보험, 투자 등으로 밀집한 지역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지식, 기술, 정보연결을 촉진하고,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를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창업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허브이다. 2024년 12월31일 발표된 정부 결의안 259호에 따르면, 호치민-국제 금융센터, 다낭시-지역 금융센터 설립 추진이 확정됐으며, 2025년 5월 까지 베트남 국제-지역 금융센터 개발 관련 세부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 관련 법적근거 및 세부 프레임워크를 작성 중이다. 이처럼 중장기적으로 자유무역지대와 금융센터 설립은 물류, 항만, 상업 프로젝트 활성화, 특히 3차 서비스 및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투자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낭시가 관광 산업 중심의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첨단 산업 분야의 기업 유치와 산업 발전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작년에 이어 경제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제조업 PMI 3개월 연속 50 이하, 경기 위축 지속

제조업 부진 지속으로 2월 PMI 49.2로 기준선 하회함. 2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는 49.2(1월 48.9)로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기준선 50을 하회했으며 수출 수요 부진이 지속됨. 해외 신규 주문 4개월 연속 감소 등 영향 받음

[Vietnam News 3.4]

▶ 물가안정세 지속...2월 CPI 전년동기대비 2.91% ↑

2025년 베트남의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0.34%, 전년 동기 대비 2.91% 상승함. 물가 상승은 주로 공급난으로 인한 돼지고기 가격 급등과 외식비, 임대료, 교통비 상승에 기인함. 2월 CPI 구성 항목 중 11개 상품·서비스군 중 9개 그룹이 상승했으며, 특히 운송비가 0.63% 상승해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음. 올해 평균 CPI는 전년 동기 대비 3.27% 상승해 정부 통제 목표인 4.5~5%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근원 CPI는 2월에 전월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2.87% 상승했으며, 올해 평균 근원 CPI는 2.97% 상승해 전체 CPI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음. 이러한 물가 안정은 주로 운송비와 교육비, 우편·통신비 하락에 기인함.

[Vneconomy 3.7]

▶ 하노이시, 홍역 확산

하노이시에서 홍역 환자 745명 발생했으며, 전년 대비 급증함. 하노이시에서는 2월 28일 ~ 3월 7일 120건의 홍역이 발생했으며, 2025년 들어 총 745건 보고됨. 지난해, 베트남 전체 홍역 확정 건수는 7,583건, 1/4 가량이 9개월 이하 영아에서 발생함.

[Vietnam Plus 3. 7]

▶ 2025년 1~2월 수출증가 지속되나 주요국과의 무역적자 확대

2025년 1~2월 총 교역액 1270.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 수출 642.7억 달러(+8.4%), 수입 628억 달러(+15.9%)로 무역흑자는 14.7억 달러 기록함. 주요 수출 품목은 공산품(88.7%), 농림수산물(10.5%)이며, 수입은 생산재(원자재·중간재, 93.7%)가 대부분을 차지함. 중국·한국 등 주요국과의 무역 불균형 심화가 과제로 남아 있음.

[Vietnam News 3. 8]

▶ 성평등 정책 진전, 여전히 격차 존재

베트남 내 리더십·소득·교육 등 성별 격차 지속됨. 베트남 사회과학원(VASS) 조사에 따르면 성평등 정책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리더십, 소득, 의료, 교육 등에서 격차 존재. 2024년 세계경제포럼(WEF) 성격차지수 72위 유지했으며,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을 상회함. 전문가들은 여성의 기술 접근성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필요성 강조함.

[Vietnam News 3. 11]

▶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인센티브에 대한 신규 법령 발표

베트남 정부는 재생 에너지 및 신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전기법 특정조항 시행을 담은 법령 58/2025/ND-CP를 발표함. 해당 법령에 따르면 국가전력망에 연결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전력수요 피크 시간대에서 우선 순위를 부여받게 되며,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에 활성화를 위해 관련 해상구역 사용료, 토지사용료 등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가 지원됨.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최소 한건의 유사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경우 해상풍력 발전소 프로젝트에 투자하거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최대 95%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함.

[Saigon Times 3. 12]

▶ 미국산 LNG와 첨단기술 제품 수입 확대를 위한 관세 재검토 추진

팜민찐 베트남 총리는 주베트남 미국 대사에게 베트남이 액화천연가스, 농산물, 첨단기술 제품을 포함한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대미수출 의존도가 높은 베트남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며 대표적으로 주요 미국산 제품의 관세 조정을 통한 수입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 한편 베트남은 베트남 내 미국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글로벌 기업이 요구한 투자인센티브, 허가 등 관련 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음.

[Reuters 3.14]

▶ 빈즈엉, 월 평균 최고 소득 지방 순위 1위 기록

베트남 통계청(GSO)의 최신 베트남 가계 생활 수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빈즈엉은 1인당 월 평균 소득이 829만 동(326달러)로 1위를 기록함. 빈즈엉은 베트남 동남부에 위치하여 남부 핵심 경제권에 속해 베트남의 산업 허브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다기능 경제 지역으로 변화 중. 한편 베트남의 전국 1인당 월 평균 소득은 496만 동(195달러)이며, 빈즈엉의 뒤를 이어 하노이, 동나이, 호치민시가 각 2~4위를 기록함.

[Vietnamnet 3.17]

▶ 1~2월 베트남 총 등록 FDI 총액 35.5% 증가

베트남 재무부 산하 외국인 투자청에 따르면,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는 2025년 1~2월 동안 69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5.5% 급증함. 2025년 첫 두 달 (1~2월)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총액은 6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 중 집행 자본은 29.5억 달러였음. 신규 등록 자본은 21.9억 달러, 추가 등록 자본은 41.8억 달러, 자본 출자 및 주식 매입은 5.3억 달러를 기록함. 대 베트남 외국인 직접 투자(FDI) 상위 국가로는 중국 31%, 싱가포르 20.6%, 홍콩 11.5%, 버진 아일랜드 7.5%, 미국 4.9%, 기타 국가 24.5%로 집계됨.

[Vietnam Plus 3.17]

▶ 보건부, 홍역 백신 50만 회분 확보

베트남 보건부는 VNVC가 기부한 홍역 백신 50만 회분을 수령해 전국 예방접종 캠페인에 투입할 예정임. 2025년 초부터 약 4만 건의 홍역 의심 사례와 5건의 홍역 관련 사망이 보고됨. 고위험 지역 24곳에서는 6-9개월 영아가 우선 접

총 대상이며, 지정된 지역에서는 1-10세 아동도 포함될 예정임.

[Vietnam News 3. 17]

▶ 베트남, 브라질 제 2의 수산물 공급국으로 부상

베트남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대외무역국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4년에 브라질의 두 번째로 큰 수산물 공급국이 되면서, 남미 국가 총 수입량의 17.33%, 총 수입 가치의 8.69%를 차지하였음. 브라질로의 해산물 수출은 양적으로 53.8%, 가치적으로 38.6% 급증하여 각각 50,500톤과 1억 3,660만 달러를 기록함. 또한 베트남 재무부 산하 관세청에 따르면, 베트남의 수산물 수출은 2월 6억 5,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4.5% 증가했고, 2025년 첫 2개월의 총 수출액은 14억 2,000만 달러로 2024년 같은 기간에 비해 19% 증가함.

[Vietnam Plus 3.18]

▶ IFC 및 스위스, 베트남에 공급망 금융 지원 확대

국제금융공사(IFC)와 스위스 정부(SECO)는 5백만 스위스 프랑(약 560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통해 베트남 공급망 금융(SCF) 프로그램 2단계를 개시함. 이는 2029년까지 운영되며, 50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SME)에 최대 350억 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 제공을 목표로 함. 2018년 시작된 1단계에서 500,000개 SME에 330억 달러 규모 자금을 지원하였고, 2단계에서는 규제 개선, 금융 기관 역량 강화, 기업의 SCF 활용 인식 제고에 집중할 계획임.

[Vietnam Plus 3.18]

▶ 베트남, 무역 부문에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

독일의 물류 업체 DHL의 예측에 따르면, 베트남은 2030년까지 무역 성장률과 절대적 물량 증가 측면에서 모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30개 경제권에 속할 것으로 예상됨. 베트남의 무역 규모는 2019~2024년 기간 동안 6.2% 증가한 데 이어 2024~2029년까지 연평균 6.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DHL은 동남아시아가 유럽과 북미 기업의 제조 허브로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베트남이 무역 측면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30대 경제권으로의 진입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Vietnam Plus 3.18]

▶ 미국 지질조사국, 베트남 희토류 매장량 대폭 하향 조정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베트남의 희토류 매장량 추정치를 2,200만 톤에서 350만 톤으로 크게 하향 조정하여, 핵심 희토류 공급국을 목표로 하는 베트남의 입지가 좁아짐. 베트남은 USGS의 희토류 매장량 2순위에서 중국·브라질·인도·호주·러시아 다음 순위인 6위로 하락함. 2024년 당시 USGS는 베트남 희토류 매장량이 글로벌 매장량의 2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풍부하지만, 개발·생산·가공 기술의 부족으로 생산량이 적다고 작성한 바 있음. 한편, 미국과 베트남은 2023년 9월 반도체 및 핵심광물 공급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음.

[mining.com(3.13.), 로이터(3.14., '23.9.25.), 블룸버그(3.10.)]

▶ 2025년 부동산 시장 큰 반등 전망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회사 JLL의 베트남 부동산 시장 전망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베트남 부동산 시장은 투자자 신뢰도 향상, 차입 비용 감소, 거래 증가로 큰 반등이 예상됨. 베트남의 2024년 외국인 직접 투자(FDI)는 254억 달러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으며, 인프라 개발이 부동산 성장을 촉진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사무실·주거·산업용 부동산 수요 증가와 법적 개혁이 시장 회복을 견인하며 투자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Vietnam Plus 3.19]

▶ 헝가리와 교육·노동·원자력 인력 양성 협력 강화

베트남과 헝가리는 교육, 노동, 원자력 인력 양성을 포함한 다방면 협력을 강화하고, 고위급 교류 확대 및 다자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함. 헝가리는 러시아 기술을 활용한 원자력 발전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에 원자력 전문가 1,000명을 양성하는 데 협력할 계획임. 양국은 EVFTA 활용 극대화, EU-베트남 투자 보호 협정(EVIPA) 조기 비준 추진, 농업·환경·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함.

[Vietnam News 3. 19]

▶ 베트남, 쌀 수출 가격 회복 조짐

베트남식량협회(VFA)에 따르면, 2024년 초 하락세를 보였던 베트남의 쌀 수출 가격이 반등 조짐을 보이며 안정화될 전망이다. 파손율 5% 쌀은 톤당 394달러로 2달러 상승, 파손율 25% 쌀은 368달러로 1달러 상승, 100% 파손미는 313달러로 3달러 상승함. 인도의 쌀 수출 금지 해제 이후 글로벌 공급 증가로 가격 하락이 발생했으나, 베트남의 수출 쌀 중 80%가 고품질 제품으로, 인도 저품질 쌀과의 차별화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 농업환경부 장관 Do Duc Duy는 글로벌 수요 회복과 함께 2분기 중반부터 쌀 수출 가격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함.

[Vietnam Plus 3.21]

▶ 편의점 시장 급성장, 외국 기업 경쟁 심화

2023~2028년 베트남 편의점 매출은 연평균 13% 성장해 2,264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GS25는 하노이에 첫 6개 매장을 오픈하며 북부 시장 확장을 본격화, 7-Eleven도 하노이 진출을 예고함. 현재 하노이 시장은 Circle K가 강세를 보이며, WinMart+도 대규모 확장을 계획 중임. 전문가들은 외국 브랜드가 성공하려면 입지 선정, 규모 확장, 소비자 트렌드 파악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함.

[Vietnam Plus 3.21]

▶ 베트남, 세계적인 수출 역풍 속에서 4,540억 달러 수출 목표

베트남 정부는 2025년 수출 목표를 4,540억 달러로 설정함. 베트남은 1월-2월에 652억 달러 상당의 제품을 수출하였으며, 이는 작년 동 기간에 비해 10% 증가한 수치임. 한편, 수입은 같은 기간 약 630억 달러로 16% 증가했고, 무역 흑자는 2억 3,500만 달러를 기록함.

[Vietnam Plus 3.23]

▶ 베트남, 디지털 자산 규제 강화, 시범 프로젝트 추진

베트남 재무부는 디지털 자산 발행 및 거래를 위한 시범 프로젝트 도입을 추진하며 관련 규제 초안을 정부에 제출함. 2023년 베트남의 디지털 자산 유입 규모는 1,050~1,200억 달러로 GDP의 25%를 차지했으며, 디지털 경제 성장 기회로 주목받음. 정부는 금융 안정성과 시장 투명성을 위해 재무부,公安부, 베트남 중앙은행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시범 시장을 통해 자금 세탁 및 금융 범죄 방지를 강화하고,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방침임.

[Vietnamnet 3.24]

▶ 베트남, 17개 내륙 컨테이너 기지(IDC) 공식 발표

베트남 건설부가 최근 12개 지방과 중앙 정부 관할 도시에 있는 17개 내륙 컨테이너 기지(IDC) 목록을 공식 발표함. 하이퐁이 4개 IDC로 최다 보유, 이어 박닌(3개), 동나이(2개) 등이 포함됨. DC는 물류 허브로서 세관 통관, 화물 처리 및 보관 등의 기능 수행함.

[Vietnam Plus 3.25]

▶ 베트남, 주요 오염시설 150곳에 온실가스 배출 할당제 도입 예정

베트남 정부가 환경보호법 이행 및 국제 기후 협약 준수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 할당제를 추진함. 석탄화력, 철강, 시멘트 산업 내 150개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시설들은 국가 총 배출량의 40% 차지하고 있음. 2025~2030년 3단계 로드맵으로 시행되며,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 절차 간소화를 포함함.

[Vietnam Plus 3.25]

1. 발굴 프로젝트 리스트

Improving and Upgrading National Highway 22, section from An Suong intersection to HCMC Ring Road 3 – Component project 3: Construction of improving and upgrading National Highway 22

* 발주처 담당자 정보 및 기타 세부사항 별도 문의

2. 프로젝트 세부정보

발주처	Ho Chi Minh City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nd Public Works - Ho Chi Minh City People's Committee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위치 : Ho Chi Minh City ▪ 프로젝트 진행상황:F/S ▪ 프로젝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tal land use for the project: about 49.25ha. ➢ The route is 8.03km length and has 10 lanes. ➢ The project is divided into 3 component project groups: ➢ Component project 1: Compensation, support, resettlement in Hoc Mon District will be implemented with the city budget capital. (CP1) ➢ Component project 2: Compensation, support, resettlement in District 12 will be implemented with the city budget capital. (CP2) ➢ Component project 3: Investment in construction of upgrading and improving National Highway 22 which implemented under BOT contract - PPP method. (CP3) ▪ 세부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1/2025: Planning ➢ Q2-Q3/2025: F/S report and final approval ➢ Q2/2025-Q3/2026: Land clearance and resettlement ➢ Q4/2025-Q1/2026: Bidding for investor selection ➢ Q2/2026-2028: Construction ➢ Q4/2028: Operation

▶ 트럼프 대통령의 미 의회 국정연설 주요 내용

◇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첫 국정연설(3.4)을 통해 취임 후 6주 간의 주요 성과 강조,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 우선순위 재확인:

▲상호관세 4.2일부 부과, ▲백악관 내 조선업 위원회 신설 및 특별 인센티브,

▲반도체법 폐지, ▲미국내 생산 자동차 대상 감세 등을 예고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 美 철강·알루미늄 모든 파생상품 3.12일부 25% 관세부과 공고 안내

◇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일부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파생상품)'에 대한 25%의 관세 확대 적용

◇ 美 상무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이행지침 발표 (美 현지시간 3.5)

◇ 美 관세국경보호청(CBP), 3.12(美 현지시간)부터 모든 파생상품에 25% 관세부과 공고 (美 현지시간 3.11)

*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상기 공고에 따라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 부과(상세품목 목록 별첨 참고)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 현지 발표

- 주요 내용

- 현지 반응

▶ 美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대응 FAQ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 美 자동차 관세 부과 발표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 현지시간 3월 26일(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외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에 25% 관세 부과를 발표

◇ 미국 현지 반응은 자동차 가격 상승 및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와 관세 도입 환영에 대한 반응이 혼재

◇ 주요국(캐나다, EU, 일본)은 관세 조치에 대한 추가/공동 대응 의지 표명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해진공, 국내 기업 위한 베트남 물류 거점 마련...2026년 운영 목표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국내 기업의 베트남 진출과 물류 공급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해진공은 19일(현지시간) 베트남 호치민시 인근 연짜 6공단에서 롯데글로벌로지스 물류센터 건설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짜 공단은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화주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물류센터 완공 후 국내 수출입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주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착공한 물류센터는 부지면적 5만 5553㎡(1만6804평), 연면적 2만6168㎡(7916평) 규모로, 상온물류센터와 저온물류센터 각 1개 동씩 조성된다. 2026년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해진공과 BNK부산은행의 금융 지원을 통해 추진됐으며,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베트남 내 필수 영업자산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글로벌 거점항만 구축전략'의 일환으로 해외 공동물류센터로 지정될 예정이며, 국내 수출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핵심 시설로 활용될 전망이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이날 착공식에서 "연짜 공단은 고속도로, 항만, 공항과 연계된 물류 허브로, 향후 국내 기업들의 안정적인 베트남 내 물류 공급망 거점이 될 것"이라며 "해진공은 국내 기업들의 해외 항만 및 물류거점 확보를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잡포스트(JOBPOST)(<http://www.job-post.co.kr>)

베트남 팀코리아협의체 활동 내역은 앞으로도 지면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으로 전파가 필요하신 기관은 코트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초 전선 회사 대한전선, 베트남 사업도 순항

최승호 법인장

1. 대한전선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대한전선은 1941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전선 회사입니다. 케이블 산업이 전무하던 불모의 땅에 케이블 기술을 뿌리내리며 국내 최초의 타이틀을 수없이 거머쥐어 왔습니다. 대한전선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 케이블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전선은 창립이후 지금까지 약 84년 동안 전력, 신재생, 통신, 소재 등 케이블 및 솔루션 분야에서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이루어왔고 8개의 해외법인과 15개의 해외지사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 3조 2,913억 원, 영업이익 1,152억 원, 당기순이익 742억 원을 달성하면서 역대급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각각 16%, 44%, 3% 증가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대한전선은 해저케이블, HVDC 케이블 시스템 등 전략 제품의 수주 확대를 통해 지속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대한비나는 2005년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면서 현지 파트너사인 Sacom과 함께 7:3의 지분 비율로 TSC(Taihan Sacom Cable)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2016년에 파트너사의 30% 지분을 인수해 사명을 대한비나(Taihan Cable VINA)로 변경하고 단독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대한비나는 우수한 실적을 달성하는 것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것을 중요한 경영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베트남에서 발생한 태풍 ‘야기(Yagi)’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약 미화 81,000 달러를 기부했으며, 현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해 발달 장애 아동 지원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비나는 본사와 함께 사회적 가치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부분에 지원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2. 베트남에서의 사업 환경은 어떠하며, 외국 기업이 진출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베트남의 사업 환경은 특별히 배타적이지 않지만, 외국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다양한 도전 과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베트남에 조인트 벤처 방식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인트 벤처 방식이 오히려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파트너사와 긴밀한 교류, 협업이 중요한 만큼,

해당 부분에서 성공적이지 않는다면 사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한비나의 전신인 TSC으로 운영하고 있을 당시,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지 파트너사와 경영 방식 및 사업 방향의 차이로 회사 운영에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설명한 것처럼 2016년에 파트너사의 지분을 인수하고 독립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이후로 대한비나는 현지에서의 품질 신뢰성 및 경쟁력을 인정받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3. 향후 계획하고 계신 신사업이 있으신가요?

대한전선은 2021년 호반그룹에 편입됐습니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이 갖춰지게 되면서 기존에 추진 및 계획했던 사업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해저케이블 사업이 있습니다. 대한전선은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 확대 및 국가 간 전력망 연계가 활발해지면서, 해저케이블 전용공장의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저케이블1,2 공장에 약 1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해저1공장을 종합 준공할 예정이며, 해저2공장은 2027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대한비나는 베트남의 경제 성장 및 전력 인프라 수요 확대에 맞추어 초고압 케이블 분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현재 최대 66kV까지의 MV 케이블을 생산하고 있지만, 향후 220kV까지 생산 가능하도록 설비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먼저 154kV급 케이블 생산을 위해 약 40억 원 규모의 개조 설비를 발주했으며, 이후 220kV급 케이블 생산을 위한 공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해당 공장을 위해 약 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 중이고 빠르면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수준이 되면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됩니다. 현재 베트남의 국민소득은 약 4,700달러 규모인 만큼, 시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투자를 하는 이유는 향후 베트남의 경제 성장을 고려한 선제적인 결정이며, 유럽, 미국, 싱가포르, 호주 등 선진국으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4. 베트남 진출을 준비중인 한국기업에게 조언해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과거에는 베트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현지 산업에 신속한 적응을 위해 파트너 기업과 조인트 벤처 방식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자리잡고 있고 정보도 다양한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 환경, 인적 및 물적 자원 정보, 법과 제도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준비한다면 처음부터 독자 법인으로 진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이미 경쟁력이 있고 시장성이 입증했다면, 베트남에서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6~7%대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어 다방면으로 사업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베트남은 인구가 많고 개발할 부분이 많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베트남 시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준비를 거친다면, 충분히 성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정 부동산 사업법 주요사항 검토

법무법인JP 베트남사무소 전현우 대표변호사

들어가며

최근 베트남은 부동산 사업법, 주택법, 토지법 등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들이 상당히 많은 변화를 포함하고 있기에 이번 칼럼에서는 개정 부동산 사업법의 주요 변경점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외국 투자기업의 정의 및 부동산 사업 범위 확장

기존 부동산 사업법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보수적인 해석의 결과로 외국 자본 비율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투자 기업은 국내 기업에 비해 부동산 사업 범위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신규 부동산 사업법은 2024년 토지법 및 2020년 투자법을 준용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요건 및 절차를 따라야 하는 기업과 그 외 기업 2가지로 나누어 분류하였습니다.

- 그룹 1: 투자법에 따라 외국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조건 및 절차가 요구되는 기업
- 그룹 2: 그룹 1 이외의 기타 기업

그룹 1은 투자법 제23조 1항에 따라 외국 투자자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총 소유권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위 분류에 따른 외국투자법인의 부동산 사업 범위는 이전 법과 동일하게 부동산 개발 시장에 대한 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부동산을 자산으로 구매하여 임대 하는 행위는 여전히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양도

개정 부동산 사업법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 양도는 기존 부동산 사업법보다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양수도계약 체결시 양도인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던 토지 사용권 증명서는 부동산 프로젝트 양도에 대한 필수 요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개정 부동산 사업법은 프로젝트 양도인이 토지 할당 또는 토지 임대 또는 토지 사용 목적 변경에 대해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고 양도될 프로젝트의 (일부인) 토지에 대한 지급의무를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 부동산 사업법에서 국가가 양도인의 프로젝트 토지를 수용하여 양수인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 부동산 사업법은 이러한 수용절차 없이 당사자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 프로젝트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용 기관을 통한 결제 의무 추가

부동산 사업 거래의 결제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새로이 추가된 규정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비현금 결제를 강화하기 위해 신규 부동산 사업법은 부동산 사업의 결제에 대한 규정을 도입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신규 부동산 사업법 제48조는 부동산 프로젝트 투자자, 부동산 기업 및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 베트남 신용 기관 또는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외국 은행 지점에 개설된 계좌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부동산 사업 계약 또는 부동산 서비스 계약에 대한 결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건은 거래의 투명성을 촉진하고 자금 세탁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해됩니다.

표준 계약서 사용 의무 추가

신규 부동산 사업법 제19조와 제45조에서는 주택, 건물 또는 그 바닥 면적의 판매, 임대 또는 임대 후 매각을 제공하는 판매자, 임대인 또는 건물주가 정부 발행 표준 계약서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투자자 및 부동산 개발 기업은 부동산 사업 거래에 사용하기 위해 시행령 96/2024/ND-CP 부록에 첨부된 표준 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 부동산 사업법 제6조 2항 d호에 명시된 대로 시행 전에 부동산 사업 계약을 공개해야 하며, 시행령 96/2024/ND-CP는 이러한 표준 계약서의 수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 부동산 중개업자 활동 제한 추가

개정 부동산 사업법은 개인 부동산 중개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과거 부동산 중개 법인을 설립할 때 2인 이상의 자격보유자를 보유해야 했던 규정을 1인으로 완화하여 1인 중개법인의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13탄

동아회계법인 임진용 회계사

들어가는말

안녕하십니까? 동아회계법인 베트남 대표 엄 진용 회계사입니다. 현재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3월 중순 시점, 아직은 쌀쌀한 바람이 느껴지는 오늘입니다만 조만간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하는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달에 이어서 소득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범위란?(계속)

지난호에서 과세대상소득으로서 급여소득에 포함되는 기본급과 제 수당 등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 급여소득에 포함되는 제 수당 항목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호에서 말씀드렸던 수당의 종류를 한번 더 반복하자면, 수당이라는 것은 각 법인의 업종별 성격이나 특성, 그리고 각자의 상황 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정의가 될 수 있으며, 그 안에서도 직급별 또는 직능별로 세부적으로 구분됩니다. 실제 수당의 종류는 수십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투자법인들의 경우 주로 직급수당, 직책수당, 교육수당, 언어수당, 만근수당, 생산장려금, 식비, 보육지원금, 주택보조금, 자녀학자금, 휴가지원비,



출퇴근지원금(또는 주유비), 유니폼, 통신지원금, 장기근속수당, 해외장기 체류보험료 지원 및 초과, 휴일 또는 야간근무수당 등 꽤 다양한 종류의 수당으로 구분하여 각 법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선 비과세 대상 수당부터 알아 봅니다. 출장비, 통신비, 유니폼(현금지원인 경우 한도가 있음), 잔업수당(정상시급을 초과하는 수당 지급분), 출퇴근지원금, 연 1회 고국방문 항공료 지원(항공 좌석 등급과는 무관 단, 가족지원은 해당없음/본인만 해당), 학자금 지원(단, 법인에서 학교에 직접 지급

하는 경우. 매 학기 등록금만 가능. 즉, 스쿨버스, 점심, 유니폼, 교보재비 등 등록금 이외 사항은 전부 과세대상), 교육훈련비, 점심식대(단, 현금지원인 경우 한도가 있음) 그리고 일부 멤버십 및 접대비 등의 항목지원 등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기 비과세 대상 수장에서 제외되어 있기는 하나 '완전과세'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주택지원비가 있습니다. 주택지원비의 경우, 통상 2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서 적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택 지원수당으로서 주재원이 상주하게 될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집주인과 주재원 개인간의 계약으로 하되 해당 주택 임차료를 주재원에게 수당으로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 때 주택 임차료 자체에 대하여 각 직급별로 임차료 지원금의 수준을 차등할 수도 있고 또는 한도를 정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되면 주재원에게 지급되는 주택 임차료는 전액 과세(즉, 완전과세)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동일한 주택지원 수당이기는 하나 해당 주택의 집주인(즉, 임대인 /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법인 경우도 무관함)과 법인간의 계약으로 법인에서 해당 집주인에게 주택임차료를 매 기간별로 직접 송금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재원의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15%의 한도를 적용하여 주택임대차 지원금을 일부 과세대상소득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첫 번째의 방식보다는 과세부담이 훨씬 경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기 첫 번째의 경우에는, 주택지원금이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은 두 번째의 경우와 동일하나 개인입장에서는 세금부담 효과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법인입장에서는 첫 번째나 두 번째 경우 모두 정상적인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차이가 없게 됩니다.

참고로, 공단내 위치한 법인의 경우 종종 법인내에 거주시설을 별도로 구비를 하고 주재원을 숙박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엄밀히 휴게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주거시설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불법입니다. 이유는 공업지역으로 설정된 공단내에는 주거시설을 위치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호텔이나 유스호스텔과 같은 주택이 아닌 서비스 주거시설에 숙박하는 경우로서 특별한 임대차 계약이 없다면 치더라도 동일한 경우로 간주한다는 사실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이 직접 매입한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감가상각비만큼이 주택임차료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됩니다.

맺음말

이번호에서는 급여소득에 포함되는 제 수당 항목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호에서는 계속해서 전액 비과세대상이 되는 개인소득과 한국내 급여소득 등에 대한 베트남내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출 식품에 대한 인증서 발급을 위한 문서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안내

FTA활용지원센터 이여람 관세사

2025년 3월 7일, 베트남 식품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보건부 장관은 수출 식품에 대한 인증서 부여를 위한 서류와 절차를 규정하는 08/2025/TT-BYT(이하 '통지문'이라 함)를 발표했습니다. 본 통지문은 수입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건부 관리 하에 수출 식품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 취소 및 기록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통지문에 따른 수출식품 인증서 및 발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합니다.

1. 적용대상

본 통지문은 수출 선적(선적에는 하나 이상의 품목 등이 포함될 수 있음) 또는 보건부 관리 하의 식품 수출 생산 시설에 적용됩니다. 다만, 보건부 관리 하에 있는 식품에 대한 자유판매증명서(CFs) 발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수출식품에 대한 인증서

본 통지문에 따른 수출식품 인증서는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08/2025/TT-BYT 제 3조에 따른 수출식품 인증서

1. 식품,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에 대해 발급된 증명서(수입국이 요구하는 경우 건강증명서 또는 기타 관련 증명서)기관이나 개인의 요청에 따라 포장재, 식품 용기 등의 정보
2. 인증서의 내용은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최소한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1) 인증서 이름
 - 2) 인증서 발급 기관 명
 - 3) 인증서 번호 및 발급일자
 - 4) 인증품목명 또는 시설에서 생산한 식품군명
 - 5) 수출 품목의 유통기한(식품생산시설 관련 자격증의 경우 식품안전적격시설 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증의 번호 및 유효기간)
 - 6) 수출 기관 또는 개인의 이름 및 주소
 - 7) 베트남의 현행 식품 안전 규정 준수 및 소비 적합, 인증서 유효성 여부에 대한 내용
 - 8) 담당기관의 서명 및 인감

3. 인증서 발급 신청

수출 식품 또는 수출 식품 생산 시설에 대한 인증서 발급 시 요청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08/2025/TT-BYT 제 4조에 따른 인증서 발급 신청

1. 통지문 부록에 명시된 양식에 따른 인증서 신청서
2. 식품 안전 적격 시설 인증서 또는 다음 인증서 중 하나: 우수 제조 관리 기준(GMP), 위험 분석 및 중요 관리 지점(HACCP), ISO 22000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 국제 식품 기준(IFS), 글로벌 식품 안전 기준(BRC), 식품 안전 시스템 인증(FSSC 22000) 또는 유효한 동등한 인증서(수출 기관 또는 개인이 인증한 사본). 다만, 식품 안전법의 여러 조항 시행을 세부적으로 기재한 정부령 15/2018/ND-CP의 제 12조 1항에 명시된 경우는 제외
3. 수출 식품 배치 샘플의 식품 안전 시험 결과(건강 증명서 및 수출 배치와 관련된 기타 증명서의 경우)에는 제품명, 지정 시험소 또는 ISO 17025에 따라 인정된 시험소에서 발급한 식품 배치에 대한 전체 정보(원본 또는 공증 사본)가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기술 규정(기술 규정이 있는 제품의 경우)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함. 또는 다음 문서 중 하나에 있는 규정/기술 요구 사항(기술 규정이 없는 제품의 경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합니다.
 - 1) 각 부처 및 지방의 통지문 또는
 - 2) 국가 표준(국가 기술 규정, 부처 통지문, 지방 기술 규정이 없는 경우) 또는
 - 3)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규격, 지역 규격, 외국 규격(국가 기술 규정이 없는 경우, 각 부처, 지방의 통지문, 지역 기술 규정, 국가 규격) 또는 4) 인증품목명 또는 시설에서 생산한 식품군명
 - 4) 첨부된 제조업체 표준(국가 기술 규정이 없는 경우, 각 부처, 지방의 통지문, 지역 기술 규정, 국가 표준, 국제 식품 규격 위원회(Codex) 표준, 지역 표준, 외국 표준)
4. 수출식품 인증평가 수수료 납부 확인

4. 인증서 발급 절차

해당 보건부 통지에 따르면 인증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발급됩니다.

08/2025/TT-BYT 제 5조에 따른 인증서 발급 절차

1. 기관 또는 개인이 인증서를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 공공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식품 안전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보건부 부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 발급 기관은 기관 또는 개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3. 발급을 거부하거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사유와 법적 근거를 명시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하는 서류 발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수정 또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 기각합니다.

4. 신청서 검토 기간은 온라인 공공 서비스 시스템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날 또는 접수 기관의 접수일(보 건부 원스톱 부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5. 증명서 발급 불가 사유를 기재한 서류는 신청서에 기재된 양식에 따라 반환됩니다.

6. 인증서 수는 수출 기관 또는 개인의 요청에 따라 발급됩니다.

7. 신청서에 작성된 사항은 신청서 제출 시점에도 여전히 법적으로 유효해야 합니다.

4.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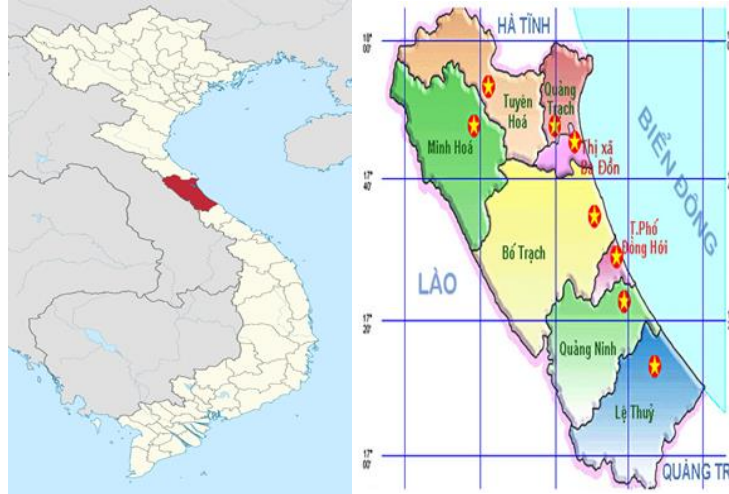
식품을 수출하는 개인 및 기관은 2025년 3월 7일로부터 수입국에서 요청하는 인증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를 위조하거나 법률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기술 표준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공인되지 않은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제출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증서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사전에 준비하시어 인증서 발급 및 수출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리는 바입니다.

베트남 중부 유망 투자지-꽝빈성

기본정보

구분	내용
면적-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 8,065 평방 킬로미터 ▪ 인구 : 918,664명 / 도시 거주 비율 : 27.36%
지정학적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꽝빈성은 베트남 중북부에 있으며, 하노이시에서 남쪽으로 500km, 호찌민시에서 북쪽으로 1,200km, 서쪽으로 라오스와 201km에 이르는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116km의 해안선을 따라 베트남 동해와 접하고 있음. ▪ 꽝빈성은 짜로(Cha Lo) 베트남-라오스 국경검문소, 혼라(Hon La) 심해항, 동허이(Dong Hoi) 국내공항, 남북철도, 국도 1A, 호찌민 도로(동-서 2개 노선) 등을 보유하고 있음. ▪ 행정 구역 : 8개의 현금 행정 단위(6개 현, 1개 군, 1개 시)와 151개의 읍/면/동급 행정 단위(15개 동, 8개 읍, 128개 면)로 이루어짐.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리한 도로교통시스템 : 국도 1A, 호찌민 도로(동·서 2개 노선), 해안도로, 남북철도(2030년까지 붕앙(Vung Ang)-무자(Mu Gia)-타켓(Tha Khec)-비엔티안(Vieng Chan) 노선 및 남북 고속철도 추가 예정), 북남고속도로(2022~2025년 건설 및 완공 예정). ▪ 또한, 꽝빈성에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공항 중 하나인 '동허이 공항'이 있고, 연간 12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혼라 심해항('혼라' 경제구역 내)도 있으며, 베트남과 라오스 간의 주요 국경 관문 중 하나인 ('짜로' 국경 경제구역 내) '짜로' 국제 국경 관문도 있음.
GRDP 성장률 / 1인당 GDP('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GRDP 성장률 : 7.2% ▪ 1인당 GRDP : US 2,362달러/년 (2022년에 비해 8.13% 증가)
경제규모 산업별 성장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수출액 : 1억 2,030만 달러 / 총 수입액 : 4억 9,490만 달러 ▪ 산업별 성장률 : 제조업/건설업(10.63%), 서비스업(6.97%), 농림어업(2.82%)
경제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건설업: 30.85%, 서비스업: 50.01%, 농림어업: 19.14%
인적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 가능 인구: 43만명, 매년 신규 노동력: 18천 - 19천명 ▪ 훈련/재훈련 노동자 비율: 67%, (자격증 소지 노동자: 28.6%)
최저임금	<p>현재 꽝빈성의 지역별 최저임금은 3개 지역으로 나뉘져 있고, 가장 낮은 임금은 월 3,250,000동(약 128 USD/월) 또는 시간당 15,600 동(약 0.61 USD/시간)이고, 최고는 월 4,180,000동(약 164USD/월) 또는 시간당 20,000동(약 0.79 USD/시간)임.</p>
외국인투자 ('23.12월 기준)	<p>총 외국인투자는 28개 프로젝트, 11억 9천만 달러 / 한국 투자 : 4개 프로젝트, 5,810만달러)</p>

투자환경



광빈성의 위치 및 지도

▶ 교통시스템

(도로)

- ✓ 도로 운송은 광빈성에서 가장 주도적인 운송 형태로, 여객수송의 93.5%와 화물수송의 98.1%를 차지.
- ✓ 광빈성에는 현재 약 12,214km의 도로망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 중 국도는 총 9개 노선 933.6km, 지방도는 370km의 21개 노선.
- ✓ 주요 도로는 국도 1A, 호찌민 도로(동·서 2개 노선), 해안 도로, 북-남 고속도로(2022~2025년 건설 및 완공 예정) 등이 있음.

(철도)

- ✓ 광빈성 내 철도노선은 베트남 북남철도의 일부로, 광빈성을 지나가는 구간의 길이는 174.5km에 달함. 이 구간에는 19개의 역이 운영 중이며, 철도 궤도는 1미터(협궤)임. (2030년까지 붕양-무자-타켓-비엔티안 노선 및 남북 고속철도 추가 예정)

(항공)

- ✓ 동허이 공항 : 광빈성을 하노이/호찌민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간주되며,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공항 중 하나임. 2030년까지 연간 300만 명의 승객과 5만~10만톤의 화물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됨

(항구)

- ✓ 혼라 심해항 (혼라 경제구역 내 위치)은 연간 12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2만 톤급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하고, 5만 톤급 선박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 추진 중.

(국경관문)

- ✓ ‘짜로’국경관문(짜로국경관문경제구역 내)은 베트남-라오스 간의 가장 큰 국경 관문.

▶ 관광

- ✓ 광빈성은 총 116.04km의 해안선을 따라 나레(Nhat Le)해변, 까잉장(Cang Gianh)항구, 붕쭈아(Vung Chua), 옌(Yen)섬, 혼라(Hon La)만, 다냐이(Da Nhay)해변, 하이닌(Hai Ninh)해변 등 아름다운 해변과 다양한 휴양지가 자리하고 있음.
- ✓ 특히, 광빈성에는 2003년과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퐁냐끼방(Phong Nha-Ke Bang)국립공원'이 있음. 또한, 퐁냐끼방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썬동(Son Doong)동굴'은 광빈성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연 동굴로 평가됨. 장엄한 경관과 독특한 생태계를 갖춘 썬동동굴은 과학자들과 자연 탐험을 사랑하는 여행객들의 큰 관심이 받고 있음.
- ✓ 그 외 관광지로는 베트남에서 가장 뜨거운 온천(105°C 이상)인 '방(Bang)'온천, 룝몬(Ruc Mon)동굴, 라반(La Van)동굴 및 쓰엉무(Suong Mu)동굴, 옌푸(Yen Phu)호수, 탁머(Thac Mo)폭포 등이 있음.



썬동(Son Doong)동굴



동허이시

▶ 천연자원

(토양)

- ✓ 광빈성에는 총 10개 토양군이 있으며, 이 중 회색 토양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약 515,781ha, 전체 자연 면적의 63.95%). 두 번째로 넓은 토양군은 표층이 얇은 토양(약 24,274 ha). 세 번째로 넓은 토양군은 해안 지역에 분포하는 사질토(약 37,243ha)이며, 총적토는 약 34,791ha로 주로 해안 평야 지역에 집중 분포하며, 이는 해당 지역의 강과 개천이 운반한 충적층으로 형성되었음.

(광물)

- ✓ 광물 자원은 비교적 풍부하고 다양하며, 대표적으로 금, 석회석, 고품질의 대규모 고령토 기반이 있으며, 다양한 건축 자재와 유명한 온천수가 분포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광물 자원은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매장량이 적어 채굴 효율이 높지 않음.

(삼림)

✓ 현재 광빈성에는 61만 5,287헥타르의 임야(전체 성 면적의 76.91% 차지)가 있음. 그중 산림이 있는 면적은 54만 3,048헥타르로, 자연림 46만 9,767 헥타르와 조림 후 형성된 인공림 7만 3,280헥타르로 구성됨. 목재 생산량은 약 5,252만m³로 추정됨. 특히, 풍나-계방 보호구역에는 희귀한 동식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음.

(에너지 개발의 잠재력)

- ✓ 광빈성은 북반구 열대 기후대에 위치해 있으며, 연중 높은 기온과 비교적 균일한 일사량을 갖추고 있어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개발에 유리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음.
- ✓ 연평균 일사량은 1,256~1,418kWh/m²이며, 특히 3~9월까지의 여름철에 집중되어 태양광 발전에 적합함. 또한, 해상 및 내륙 지역에서 평균 풍속이 6~6.75m/s(고도 120m 기준)로 나타나 풍력 발전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경제개발 현황 및 발전 방향

▶ 산업단지 현황

✓ 8개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총 면적 약 2,000ha로 총리의 승인 하에 상세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현재 광빈성에서는 7개의 산업단지가(서북 동허이 산업단지, 북 동허이 산업단지, 서북 하우 산업단지, 캄리엔 산업단지, 혼라 향만 산업단지, 혼라 II 산업단지, 서부관문 산업단지) 운영 중이며 총 40개의 생산공장 가동 중

▶ 외국인투자 현황

✓ 외국인 투자 2023년 12월까지 누적 28개 프로젝트, 총 등록자본금 1,190백만 달러

광빈성 10대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내용	투자국	투자액(\$)
송지안 시멘트 공장	시멘트 생산	태국	201,230,000
광폭 시멘트 공장	시멘트 생산	태국	200,000,000
BT2 풍력 농장	전기 생산, 전력 전송 및 배급	싱가포르	194,573,739
BT1 풍력 농장	전기 생산, 전력 전송 및 배급	싱가포르	156,822,000
고품질 칼슘카보네이트 분말 생산 공장	석회석 분말 채굴 및 가공	미국	142,000,000
쓰레기분류, 처리, 바이오가스 및 유기비료 생산공장	쓰레기 처리, 비료 생산	독일	123,404,000
태양광 발전소	49.5MW 용량의 태양광 전기 생산	한국	44,665,000
고령토(카올린) 채굴 및 가공	고령토 채굴 및 가공	체코	35,100,000
흰다리 새우 양식 농장 및 새우 종자 생산	흰다리 새우 양식 및 새우 종자 생산	태국	17,847,333
문화 클링커 공장 열회수 전기 생산 시스템	열회수 전기를 이용한 전기 생산	태국	15,275,000

▶ 경제 개발 방향

- ✓ 현재 산업단지나 경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으며, 총 16개의 산업 클러스터가 계획은 되어 있는 상황임. 그 중 3개의 산업 클러스터는 세부 계획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인프라 건설 준비 단계에서 관련 절차와 프로세스가 진행 중.

▶ 한국 투자 현황

- ✓ 2023년 12월 기준 누계 총 투자액: 58,107,973 USD, 총 프로젝트 수: 4건
 광빈성 10대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내용	위치	투자액(\$)
태양광발전소	49.5MW태양광전기생산	레투이현	44,665,000
광빈에너지펠릿생산공장	나무펠릿생산	혼라항만산업단지	11,000,000
LOTTE CINEMA 동허이	영화상영활동	동허이시	2,400,000
DIF INTERNATIONAL 유한회사	자동차부품	동허이시	42,973

▶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의 현황

- ✓ 주요 산업단지 정보

산업단지명	설립연도	면적(ha)	주요 정보
혼라 항만 산업단지 (확장 포함)	2008	168.26	- 입주율: 약 58% - 위치: 광빈성 광트락(Quang Trach)현 광동면(Quang Dong) (동허이에서 북쪽으로 약 60km) - 운영비: 3,500동/m ² /년 (= US 0.13달러) - 토지임대료: 4,950동/m ² /년 (= US 0.19달러)
혼라 II 산업단지	2011	177.1	- 입주율: 약 19.2% - 위치: 광빈성 광트락현 광푸면(Quang Phu) (동허이에서 북쪽으로 약 60km) - 운영비: 3,500동/m ² /년 (= US 0.13달러) - 토지임대료: 4,500동/m ² /년 (= US 0.18달러)
서부 관문 산업단지	2018	122	- 입주율: 14.2% - 위치: Quang Hung/Quang Tung/Quang Trach 지구 (혼라 경제구역 내) - 운영비: 3,500동/m ² /년 (= US 0.13달러) - 토지임대료: 4,500동/m ² /년 (= US 0.18달러)

산업단지명	설립연도	면적(ha)	주요 정보
북 동허이 (Bac Dong Hoi) 산업단지	2009	150	- 입주율: 90% - 위치: 팡빈성 보트락(Bo Trach)현 리트락(Ly Trach)면 (동허이시에서 북서쪽으로 약 7km) - 인프라 임대료: 490,248동/m ² /50년 (1회 지불) ~ US 19.3달러 - 운영비: 3,400동/m ² /년(= US 0.13달러) - 토지 임대료: 4,550동/m ² /년(= US 0.18달러)
서북 쿤하우 (Tay Bac Quan Hieu) 산업단지	2017	262.32	- 입주율: 12% - 위치: 팡빈성 팡닌(Quang Ninh)현(동허이시에서 남쪽으로 약 7km) - 운영비 (예상): 3,500동/m ² /년(= US 0.13달러) - 토지 임대료: 5,400동/m ² /년(= US 0.21달러)
캄리엔 (Cam Lien) 산업단지	2012	450	- 위치: Cam Thuy면, Thanh Thuy면, Ngu Thuy Bac면 북부 (동허이시에서 남쪽으로 약 35km) - 면적: 450ha - 인프라 임대료 (토지임대료 포함): 약 US 35-40달러/m ² /50년 (연간 약 16,500-18,500동)
방(Bang) 산업단지	-	135	- 위치: 팡빈성 레투이(Le Thuy)군 - 잔여 임대 가능 면적: 93.9ha. (자금 선불 필요, 2-2.5억동/ha) - 임대료 (예상): 6-12개월 내 토지 정리 완료 후 결정 예정 - 현재 산업단지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할 투자자 모집 중

✓ 주요 산업클러스터 정보

산업단지명	설립연도	면적(ha)	유치 대상 산업
툰득(Thuan Duc) 산업클러스터	2015	20.17	도자기 제조, 포장재, 농산물 가공, 목재 예술, 등나무와 대나무 공예품 및 기타제품
북응히아(Bac Nghia) 산업클러스터	2015	10.19	목재 가공, 목재 예술, 플라스틱 제품, 건축 자재 및 기타 제품
응히아닌(Nghia Ninh) 산업클러스터	2015	9.06	목재 가공, 목재 예술, 건축 자재 및 기타 제품
푸하이(Phu Hai) 산업클러스터	2015	2.48	목재 가공, 목재 예술, 플라스틱 제품, 기계, 건축 자재 및 기타제품
록닌(Loc Ninh) 산업클러스터	2022	16.17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가공 산업; 식품, 의류, 전자, 기계, 조립 및 농업 기계 및 장비 수리; 농촌 산업 지원 제품 제조; 건축 자재 제조
띠엔화(Tien Hoa) 산업클러스터	2022	17.37	제조업, 금속 제련, 산업용 석회 제조, 폐기물 수집 및 재활용, 건축 자재 가공, 농산물 가공 및 농촌 산업 관련 산업에 우선 투자유치

투자 인센티브

- ✓ 지방인민위원회는 풍나-깨방 관광중심지와 더불어 혼라/짜로 경제구역과 7개 산업단지를 지방의 전체적인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규정하고 있음.
- ✓ 혼라/짜로 경제구역과 7개 산업단지들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산업 및 제품 생산을 유치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지방 재정수입을 증가시키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함.
- ✓ 짜로 국경 경제구역에서는 상업을 물류 중심지 및 수출입 허브로 발전시켜, 광빈성의 무역과 서비스를 촉진함. 또한, 국경 지역 경제발전을 국방·안보와 연계하고, 특히 라오스를 포함한 주변 국가들과의 대외 관계를 강화함.
- ✓ 국내외 투자유치를 계속 강화하고, 대규모·첨단 기술을 갖춘 프로젝트를 유치하여 주요 산업, 부품소재산업 및 가 산업의 성장을 촉진함.

투자 유망분야

✓ 농업	✓ 자연 보호 및 생물 다양성
✓ 제조업	✓ 의료
✓ 상업 및 관광	✓ 교육 및 훈련
✓ 도시, 폐수 및 쓰레기 처리	

투자유치기관 정보

기관명	담당	연락처/이메일	홈페이지
기획투자청	Mr. Nguyen Xuan 청장	+84 913295179	https://skhdt.quangbinh.gov.vn/
	Mr. Vo Thanh Duc 부센터장	+84 982092915 vtduc74@gmail.com	
광빈성 경제구역 관리위원회	Mr. Nguyen Quoc Khanh 부위원장	+84 979216999	https://bqkkt.quangbinh.gov.vn/
	Mr. Vo Van Tung 기획투자실장	+84 913295020	



2025 베트남 ESG 최신 동향 및 시사점

[클릭시 해당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1. 베트남 ESG 최신 동향 및 특징
2. 주요 ESG 추진 사례
3. 베트남 ESG 문제점 · 과제
4. 시사점 및 제언



2025 KOTRA 서비스 가이드북

[클릭시 해당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1. 무역
2. 투자진출
3. 투자유치
4. 해외취업 & 국내 외투기업 채용지원
5. 해외전문인력 유치 지원

2025 베트남 하노이 국제 무역 전시회

전시회명	2025 베트남 하노이 국제 무역 전시회 [VIETNAM EXPO] The 34th Vietnam International Trade Fair
개요	1991년 최초로 개최되어 2025년 기준 34회 개최 예정인 ‘베트남 엑스포’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쿠바 등 25개국 내외의 해외기업 200여 개사가 참가하는 베트남 북부지역 최대 규모의 종합 박람회임. 한국관으로는 1999년 이래 2024년까지 25회 참가하였으며, 참가규모가 지속 확대되어 주요 해외참가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함.
개최기간	2025.04.02 - 2025.04.05
개최장소	I.C.E Hanoi - Hanoi International Center for Exhibition (Cultural Palace)
개최규모	15,000sqm(m2)
웹사이트	https://vietnamexpo.com.vn/en
산업분야	건강&스포츠, 뷰티&미용용품, 의료&제약, 유아·아동&교육&임산부, 패션&섬유, 농수산&임업
전시품목	기계 및 장비, 전기전자, 전자재, 가구, 의류, 식품 및 음료, 서비스업 등 산업 및 생활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전시품목
주최자	VINEXAD +84-28-3825-5546 / hongnt@vinexad.com.vn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국가명	1988. 1. 1~2025. 2.28 기준 누계		2025. 1. 1 ~ 2.28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국	10,136	91,922.50	48	62.25	1,501.75
싱가포르	3,982	84,441.56	67	450.71	1,480.27
일본	5,531	78,362.50	45	104.08	732.64
대만	3,288	41,135.90	27	58.27	142.78
홍콩	2,859	39,044.04	53	253.03	967.21
중국	5,270	31,619.00	160	679.89	434.08
버진아일랜드(영)	931	24,051.05	6	163.72	334.68
네덜란드	459	15,009.42	4	50.88	57.06
태국	762	14,762.51	6	36.04	427.9
말레이시아	769	12,974.51	11	3.55	69.45
미국	1,432	11,920.92	12	107.92	9.666
기타	7,058	62,064.27	77	220.7	747.79
전체 합계	42,477	507,308.18	516	2,191.03	6,904.91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연번	구분 산업	2025. 2. 28 기준 누계		2025. 1. 1 ~ 2.28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8,034	311,571.76	195	1,447.77	4,715.10
2	부동산 경영	1,232	74,412.19	18	371.46	1,478.78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197	41,927.58	-	-	0
4	호텔, 외식서비스	1,014	13,848.39	13	14.4	20.99
5	건설	8,249	12,143.96	166	83.5	148.98
6	도소매, 유지보수	1,857	11,003.48	12	3.22	15.57
7	물류운수	1,206	6,639.03	9	31.55	40.76
8	과학기술, 전문활동	4,850	6,068.36	57	151.51	354.62
9	정보통신	3,134	5,148.59	24	1.95	-32.61
10	채광	107	4,870.39	-	-	0.61
11	교육, 양성	708	4,635.00	5	0.6	0.38
12	농, 임, 수산	538	3,863.98	1	8.43	2.04
13	예술 오락	89	3,227.58	1	0.16	0.27
14	용수 공급, 폐기물 처리	152	3,171.60	3	70.58	73.78
15	의료와 사회복지	159	1,768.73	-	-	69.12
16	행정, 지원 서비스	683	1,125.83	9	2.43	7.49
17	금융, 은행, 보험	102	933.14	1	0.6	6.14
18	기타 서비스	160	937.96	2	2.89	2.89
19	가구내 고용활동	6	10.64	-	-	-
	합계	42,477	507,308.18	516	2,191.03	6,904.91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증감율%)

구분	2022	2023	2024	2025.2
수출	3,713	3,546	4,055	642.7(+8.4)
수입	3,589	3,263	3,807	628.0(+15.9)
무역수지	124	280	247	14.7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목명	2022	2023	2024	2025.2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7,994	52,379	53,891	9,214(-3.1)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55,536	57,336	72,584	12,535(+25.3)
기계/플랜트 및 부품	45,751	43,128	52,191	7,691(+10.3)
섬유/직물제품	37,566	33,329	37,036	5,633(+9.3)
신발류	23,895	20,237	22,871	3,470(+10.3)
원목 및 목제품	16,011	13,467	16,282	2,451(+9.4)
철강제품	7,993	3,973	4,594	842(+32.1)
수송수단 및 부품	11,988	14,157	15,066	2,473(+7.6)
수산물	10,923	8,971	10,040	1,428(+19.0)
원사(Yarn)	4,713	4,355	4,407	648(-2.8)
기타	98,934	103,339	116,569	17,883
합계	371,304	354,671	405,531	64,268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목명	2022	2023	2024	2025.2
전자제품 및 컴퓨터	81,884	87,965	107,053	20,147(+28.9)
기계/플랜트 및 부품	45,192	41,579	48,887	7,786(+18.5)
각종 전화기 및 부품	21,126	8,749	10,403	1,683(+13.8)
의류(원단)	14,706	13,016	14,905	2,110(+7.5)
플라스틱 원료	12,387	9,755	11,780	1,932(+24.7)
각종 철강	11,920	10,425	12,583	1,734(-7.9)
기타 비금속	9,253	7,626	9,554	1,666(+30.1)
플라스틱 제품	8,119	7,508	8,853	1,365(+11.9)
화학제품	9,144	7,605	7,735	1,121(+1.1)
화학물질	8,747	7,726	8,286	1,196(-3.4)
기타	136,423	124,419	140,724	22,058
합계	358,901	326,373	380,763	62,798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21	2022	2023	2024	2025.2
1	미국	96,293	109,388	97,020	119,501	19,560
2	중국	56,009	57,702	61,207	61,211	7,878
3	한국	21,945	24,293	23,498	25,619	4,369
4	일본	20,128	24,232	23,314	24,608	4,160
5	홍콩	11,996	10,936	9,631	12,423	1,962
6	네덜란드	7,686	10,430	10,241	12,993	1,959
7	독일	7,286	8,968	7,400	7,934	1,570
8	인도	6,259	7,961	8,498	9,064	1,501
9	태국	6,161	7,476	7,192	7,782	1,218
10	영국	5,765	6,065	6,345	7,543	1,255
	기타	96,782	103,853	100,325	116,853	18,836
	합계	336,310	371,304	354,671	405,531	64,268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21	2022	2023	2024	2025.2
1	중국	109,874	117,866	110,644	114,020	23,341
2	한국	56,155	62,088	52,511	55,925	9,005
3	대만	20,772	22,631	18,421	22,741	4,386
4	일본	22,648	23,373	21,638	21,588	3,737
5	미국	15,270	14,470	13,822	15,102	2,591
6	태국	12,564	14,092	11,797	12,447	1,918
7	오스트레일리아	7,946	10,144	8,533	7,592	1,084
8	말레이시아	8,148	9,124	7,809	9,133	1,383
9	인도네시아	7,587	9,641	8,728	10,527	1,704
10	인도	6,950	7,086	5,864	5,829	920
	기타	64,320	68,386	66,606	105,859	12,729
	합계	332,234	358,901	326,373	380,763	62,798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율%)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2
수출	56,729(+16.9)	60,972(+7.5)	53,479(-12.3)	58,321(+9.1)	9,095(+8.3)
수입	23,965(+16.5)	26,726(+11.5)	25,941(-2.9)	28,440(+9.6)	4,824(+0.9)
무역수지	32,763	34,246	27,550	29,880	4,271

자료원: KITA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목명	2021	2022	2023	2024	2025.2
반도체	14,026(22)	16,240(15.8)	12,729(-21.6)	18,039(+41.7)	3,473(+40.3)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2,050(26.1)	12,527(4.0)	12,350(-1.4)	11,227(-9.1)	1,283(-10.3)
석유제품	1,157(-3.2)	3,733(222.3)	3,327(-10.8)	2,731(-17.7)	360(-8.6)
무선통신기기	3,315(-4.2)	2,358(-29.2)	2,166(-8.1)	2,511(+15.9)	398(-7.9)
합성수지	2,415(49.5)	2,581(6.9)	2,001(-22.5)	2,333(+16.8)	370(-0.6)
기구 부품	2,405(7.3)	2,194(-8.8)	1,861(-15.1)	1,772(-4.8)	279(-2.5)
플라스틱 제품	1,174(5.3)	1,067(-9.2)	1,021(-4.2)	1,055(+3.4)	159(-0.5)
철강판	1,267(20.4)	1,069(-15.6)	887(-17.0)	994(+12.0)	157(+14.7)
기타기계류	957(43.0)	793(-17.1)	801(+1.0)	664(-17.0)	87(-24.3)
계측제어분석기	717(4.5)	815(13.6)	734(-9.9)	593(-19.1)	81(-8.4)
기타	17,039	17,242	15,612	16,402	2,448
합계	56,729(16.9)	60,972(7.5)	53,489(-12.3)	58,321(+9.1)	9,095(+8.3)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목명	2021	2022	2023	2024	2025.2
무선통신기기	5,579(12)	5,986(7.3)	4,543(-24.1)	4,678(+3.0)	645(+40.3)
의류	3,393(7.9)	3,840(13.2)	3,542(-7.7)	3,593(+1.4)	633(+0.8)
컴퓨터	1,659(30.6)	1,948(19.1)	2,075(+6.6)	2,383(+14.9)	508(-15.0)
반도체	750(33.8)	787(5.0)	2,053(+160.9)	2,976(+45.0)	647(+40.3)
산업용 전기기기	725(26.2)	970(33.8)	1,396(+44.0)	1,699(+21.7)	277(+15.2)
신변잡화	984(-4.4)	1,250(27.2)	1,252(+0.1)	1,221(-2.5)	233(+8.7)
목재류	755(19.5)	942(24.8)	722(-23.3)	681(-5.7)	114(+5.2)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876(-14.7)	783(-10.5)	657(-15.9)	598(-9.1)	91(+40.9)
기구부품	624(29.6)	654(4.8)	571(-12.7)	654(-14.6)	108(+32.2)
영상기기	426(8.9)	441(3.6)	409(-7.2)	414(+1.2)	57(-6.5)
기타	8,161	9,103	8,718	9,543	1,511
합계	23,966(16.5)	26,726(11.5)	25,938(-2.9)	28,440(+9.6)	4,824(+0.9)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2023~2024년 주요 경제지표 >

구분	시기	단위	국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GDP증가율	2023년(연간)	%	7.09	5.05	2.9	3.8	1.9	5.6	
	2024년 3Q	%	7.43	4.95	5.4	5.3	2.5	5.2	
	2024년 4Q	%	7.55	5.02	4.3	4.8	2.5	5.2	
생산	산업생산 (증가율 또는 지수)	2023년(연간)	-	N/A	N/A	125.9	127.3	97.5	N/A
		2024년 12월	-	N/A	N/A	140.5	136	91	N/A
		2025년 1월	-	N/A	N/A	131.9	135.6	98.9	N/A
	구매관리자지수 (PMI)	2023년(연간)	-	N/A	N/A	N/A	47.7	51.8	51.5
		2024년 12월	-	49.8	51.2	51.1	48.6	51.4	54.3
		2025년 1월	-	48.9	51.9	50.9	48.7	49.6	52.3
소비	소비자동향지수	2023년(연간)	-	N/A	N/A	N/A	N/A	56.7	N/A
		2024년 12월	-	N/A	127.7	N/A	N/A	57.9	N/A
		2025년 1월	-	N/A	127.2	N/A	N/A	59	N/A
	소매판매	2023년(연간)	-	9.6	N/A	N/A	N/A	N/A	4.5
		2024년 12월	-	9.3	1.8	N/A	N/A	N/A	1.5
		2025년 1월	-	9.5	0.5	N/A	N/A	N/A	1.4
	소비자물가 (증가율 또는 지수)	2023년(연간)	%	3.3	N/A	4.8	N/A	N/A	7.9
		2024년 12월	%	2.9	1.57	1.6	1.7	N/A	2.9
		2025년 1월	%	3.6	0.76	N/A	1.7	N/A	2.9
투자	고정자산투자	2023년(연간)	%	N/A	N/A	N/A	N/A	N/A	N/A
		2024년 12월	%	N/A	N/A	N/A	N/A	N/A	N/A
		2025년 1월	%	N/A	N/A	N/A	N/A	N/A	N/A
고용	실업률	2023년(연간)	%	2.3	N/A	1.9	3.4	1	3.1
		2024년 3Q	%	2.2	N/A	1.9	3.2	1	3.1
		2024년 4Q	%	2.2	N/A	1.9	3.1	0.9	4.3
무역	수출증가율	2023년(연간)	%	△4.4	△11.3	△10.1	△8.0	△1.0	△3.4
		2024년 12월	%	12.8	4.8	2.9	16.9	8.7	△1.9
		2025년 1월	%	14.3	4.9	2.9	0.3	13.6	6.3
	수입증가율	2023년(연간)	%	△8.9	△6.6	△13.4	△6.4	△3.8	4.1
		2024년 12월	%	19.2	11.1	8.3	11.9	14.9	△1.5
		2025년 1월	%	16.7	△2.7	10.9	6.2	7.9	10.8

[자료원]

-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MIER, S&P
 - (태국) 산업경제실(OIE), 태국중앙은행(BOT), 태국상공회의소대학교(UTCC), 태국상무부(MOC), 태국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
 -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ytics, Unemployment rate
- 전망치는 *표시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NEWS



베트남 · 인도네시아 · 인도
비즈니스 협력센터

PARTNERSHIP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편집 및 제작 :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협업 : 코트라하노이, 호치민, 다낭 무역관
☎ +84 24-3946-0511 ✉ soorin@kotra.or.kr < 저작권자 ©KOTRA >